

중·장년층 실직자의 실직에 따른 반응과 구직활동: 남녀차이를 중심으로*

안상수^{1)†} 신강현²⁾ 한영석¹⁾ 탁진국¹⁾ 유태용¹⁾ 한태영¹⁾ 황종오¹⁾

¹⁾광운대학교

²⁾아주대학교

본 연구는 중·장년층 실직자를 대상으로 실직으로 인한 반응에서 남녀간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선호하는 구직활동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직기간이 2개월 미만인 실직자 153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성 실직자들이 남성 실직자에 비해 실직으로 인한 부정적 반응을 더 많이 나타냈다. 또한 고용몰입에서 성차가 유의하지 않았음에도 여성 실직자들은 남성들에 비해 재취업 제한요건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성별을 고려한 변량분석에서 30대 후반과 40대 이후 연령이 30대 초의 실직자들보다 부정적 반응을 더 많이 나타냈다. 결혼유무와 성별을 고려한 분석한 결과, 기혼 실직자들은 미혼 실직자들에 비해 우울, 정신건강에서 실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더 적게 받았다. 전반적 구직탐색활동 정도를 나타내는 구직강도에서는 남녀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를 공식적, 비공식 구직활동으로 구분해서 볼 때, 여성 실직자들은 사회적 관계망을 통한 비공식 구직활동이 남성보다 적었고, 주로 공식적 구직활동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30대 후반 연령대가 30대 초반에 비해 그리고 기혼자들이 미혼자들에 비해 공식적, 비공식적 구직활동에서 모두 더 높았다. 한편 실직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을 검토한 결과, 남녀 모두 역기능적 대처와 순기능적 대처가 중요한 예언변인이었으나 남성에게는 자존감이, 여성에게는 취업 제한요건이 실직반응을 더 잘 예측하였다. 또한 남녀 모두 순기능적 대처양식이 구직강도를 가장 잘 예언하는 변인이었지만, 남성의 경우 고용몰입, 구직 효능감 순으로 그리고 여성의 경우 구직 효능감, 고용몰입의 순으로 구직강도를 잘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논의하였다.

주제어 : 중·장년층 실직자, 여성 실직자, 불안, 신체화, 정신건강, 구직강도, 구직활동, 비정규직, 실직에 대한 반응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연구지원(KRF-2004-074-HS0007)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안상수, (139-749)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447-1번지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전화: 02) 940-5420, E-mail: assoo1@naver.com

본 연구는 중·장년층 실직자를 대상으로 실직에 따른 반응(불안, 우울, 신체화, 정신건강)과 구직활동(구직강도, 공식적 구직활동, 비공식적 구직활동)에서 남녀간의 차이를 알아보고 이들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예언변인들을 탐색적으로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직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실직으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Kasl, Rodriquez & Lasch, 1998; Vinokur, Price & Caplan, 1996)나 정신건강(장재윤, 장은영, 김범성, 노연희, 이지영, 한지현, 2004), 사회적 관계의 악화(Ahlburg, 1986), 가족의 해체(조성희, 1999; Clark & Oswald, 1994), 재정적 압박(유성렬, 정기원, 2000; Yenung & Hofferth, 1998) 등과 같은 많은 부정적 영향을 낳는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직자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주로 청년층 실업에 초점을 두고(예컨대, 장재윤, 신현균, 김은정, 신희천, 하재룡, 장해미, 2004) 있었기 때문에 중·장년층 실직자들이 겪는 심리적 신체적 건강과 관련한 기초 자료가 적은 편이며, 더구나 주로 남성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장년층 여성 실직자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더욱 더 적은 편이다. 또 여성을 대표적 표본으로 삼은 연구들 역시 여성을 남성 실직자들의 아내로서의 역할에 주로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Leana & Feldman, 1991).

그 동안 여성 실직자에 대한 연구가 적었던 이유는 여성들이 직업의 중요성을 낮게 지각할 것(Kaufman & Fetters, 1980)이라는 일반적인 고정관념과 여성들이 실직으로 인해 겪는 충격이 남성에 비해 적을 것이라고 가정하는(Kasl & Cobb, 1979) 데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전통적 관점 중 하나는 기혼 여성의 수입은 배우자의 수입에 비해 부차적일 것이기

때문에 실직으로 인한 외상적 경험이 남성만큼 크지 않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남성과 달리 직업은 여성의 정체성에서 그다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즉 직업은 여성의 여러 역할 중의 하나일 뿐이며, 여성의 삶에 있어서 전통적 아내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Bartell과 Bartell(1985)에 의하면 남성은 능동적으로 직업적 삶을 추구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좁은 반면, 여성은 가정과 일 중에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경제적 이유 외에 직업생활에서 얻는 삶의 가치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지 않기 때문에 여성은 실직을 당하더라도 남성보다 심리적으로 더 잘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비록 전통적 관점들이 여성 실직자들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최근 여성들의 사회진출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전통적 관점으로 여성 실직자들을 정확히 설명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한 개관 연구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 여성들은 젊은 남성들에 비해 직장가 가정 모두에 대해서 몰입정도가 높다고 한다(Sverko & Super, 1995). 또한 여성 취업률의 증가는 가정 내에서 수입구조의 변화를 가져왔고 여성이 배우자와 동등한 수준의 경제적 기여를 하거나 주 수입원의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남성 영역으로 간주되던 직종에 여성의 진출도 늘어나고 있다(Goh, 1991). 이런 점에서 여성의 실직을 과거 처럼 남성에 비해 부차적인 현상으로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여성들 역시 교

육기회의 향상과 여성 취업률의 증가,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의 이유로 삶에서 직업이 차지하는 가치가 과거 전통적 관점과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보고 우리나라 여성들이 실직으로 인해 겪게 되는 부정적 경험이 어느 정도인지 구직강도나 구직활동에서 남성 실직자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성, 연령, 학력, 결혼유무,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다양한 범주의 실직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Dooley와 Catalano(1988) 그리고 Kulik(2000)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실직에 따른 부정적 반응은 개인적 특성이나 인구통계학적 요인 및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다를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층 남녀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결혼유무, 연령 등에 따라 실직에 대한 반응, 구직강도, 구직활동 등에서 남녀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변인과 사회 경제적 선행변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생각된다.

실직에 대한 반응: 불안, 신체화, 우울 및 정신건강

실직은 스트레스 유발 사건 중 상위에 속하며, 10대 외상적 경험의 하나이기도 하다(Spera, Buhrfeind & Pennebaker, 1994). 개인의 삶에서 직업이 갖는 유용성의 측면으로 보면 실직은 이혼이나 별거보다도 더 나쁜 경험일 수 있다(Clark & Oswald, 1994). 실직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실직 당사자의 심리적, 신체적, 인지적 역기능들을 초래하며, 이와 함께 가정에서의 부부간이나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Vinokur, Price 및 Caplan(1996)는 실직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증상으로 정신과적 장애와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일부 증거에 따르면 심리적 문제를 가진 사람은 해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정신적 신체적 문제를 지닌 실직자들의 경우 구직활동이나 재취업 기회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Mastekaasa, 1996). 이런 점에서 실직으로 인한 부정적 반응은 장기적으로는 반복 실직이라는 악순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다.

실직으로 인한 부정적인 반응(불안, 신체화, 우울, 정신건강)의 상당 부분은 실직 당사자들의 재정적 곤란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DeFrank & Ivancevich, 1986). 대부분의 실직자들의 경우에 실직 전이나 후에도 마찬가지로의 경제적 부담(가계비, 교통비, 세금지출 등)은 계속 지고 있지만 수입은 격감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이런 재정적 어려움은 현재 상황에 대한 불안을 더 크게 지각할 가능성이 있으며(Sales, 1995), 반면에 재정상황이 유리할수록 재취업에 대한 기대와 해고에 대한 절차적 공정성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Leana & Feldman, 1992).

McKee-Ryan과 Kinicki(2002)는 실직에 따른 반응과 구직활동을 예측하고 다양한 조절효과를 보이는 많은 변인들을 확인한 바 있다. 이 연구자들은 대처양식을 중심으로 이들 요인들이 심리적 복지(well-being)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관한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실직에 대한 반응과 구직활동을 예언하거나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 주요 변인들로는 대처양식, 귀인, 고용몰입, 생애만족, 자존감 등이 있으며, 취업제한요건, 사회지지, 사회적 자산 요인, 경제적 어려움, 해고과정의 공정성 지각

등을 들 수 있다. 예컨대 자존감이나 자기 효능감, 강인성 등에서 높은 사람들은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또한 사회적 지지나 사회적 자산, 생애만족 요인 등은 스트레스나 신체화 증상에 대해 완충기능을 하는 반면, 고용몰입이 높거나 구직효능감이 높은 경우 일이나 직업에 대한 자기 가치를 높게 부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직자들은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부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Leana와 Feldman(1992)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소수집단이라 할 수 있는 여성, 저학력층 그리고 고령 실직자들은 재취업까지의 실직기간이 더 길고, 실직에 대해 다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연령에 있어서 중·장년층들은 젊은 실직자들에 비해서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결과가 일관성 있게 보고 되고 있다(Warr & Jackson, 1984; Wanberg, Hough & Song, 2002). 특히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재정적 스트레스가 가장 크며 건강에서 급격한 손상이 보고 되었다. 한편 젊은 실직자는 가족에 대한 의무나 책임을 적게 느끼고, 실직의 긍정적 측면인 자기개발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Purussia, Kinicki 및 Bracker(1993)의 연구에 따르면 교육수준은 재취업 성공과 정적인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낮은 스트레스나 전반적인 개인의 복지에도 정적인 관련이 있다고 한다. Leana와 Feldman(1990)은 교육수준이 높은 실직자들은 또한 실직 상황에서 긴장을 덜하며 재취업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경향을

을 더 많이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많은 연구들이 스트레스 대처방략과 실직에 대한 반응 간의 높은 관련성을 시사하고 있다(Lazarus & Folkman, 1984; Leana & Feldman, 1992; Latack & Havlovic, 1992). 대처행동에 관한 문헌들을 살펴보면 대처행동은 문제 중심적 대처(통제방략)와 증상 중심적 대처(정서방략)로 분류된다. 첫째, 문제 중심 대처방략은 스트레스 유발 상황 자체를 관리하거나 해결하려는 유형의 대처를 말한다. 예컨대,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인맥을 활용하는 것과 같이, 스트레스의 원인인 실직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반면에 정서 중심적 대처는 스트레스 유발 상황 자체를 해결하기보다는 개인의 정서 상태를 관리하는 유형의 대처를 말한다. 이러한 유형의 대처전략에는 실직의 괴로움이나 고독을 경감시키기 위해 친구들과 어울린다는 실직 후에 구직활동 자체를 회피하는 행동, 약물에 의존해서 정서적 안정을 찾으려는 행동 등을 포함한다.

대처행동과 심리적 건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처행동은 문제 중심적 대처방략이든, 혹은 정서 중심적 대처방략이든 스트레스의 부정적 경험을 경감시켜 준다는 점에서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Edwards, 1988). 일반적으로 구직활동의 적극성, 높은 적응력을 특징으로 하는 문제 중심적 대처가 실직 기간 동안에 개인의 정신건강을 증진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Conway와 Terry(1992)는 통제 지향적인 대처방략(문제 중심적 대처방략)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회피 지향적인 대처방략(정서 중심적 대처방략)을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심리적 건강을 보인다고 한다. 그러

나 Leana와 Feldman(1992)은 실직자중 문제 중심적 대처의 주요 특징인 높은 직무탐색 행동을 보인 실직자들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음을 밝혔다. 즉 적극적인 직무탐색 활동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에 반복적으로 실패하게 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정신건강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직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성차에 관한 선행 연구는 대부분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실직 당사자로서가 아니라 실직한 남성의 배우자이거나 가족 구성원의 입장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실직자로서 여성의 반응과 구직활동을 남성과 동등하게 비교한 연구는 적다. 이들 남성 중심의 연구들은 여성 실직자들이 가정 내 주 수입원이 아니며 배우자의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Kasl & Cobb, 1979), 직업을 갖는 것이 여성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지 못하며(Warr & Parry, 1982), 실직 후 직장인에서 아내와 어머니로의 역할 중심을 이동할 가능성이 많다(Bartell & Bartell, 1985)는 등의 이유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실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불안, 신체화, 우울, 정신건강)을 남성보다 적게 경험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즉 실직 후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들은 굳이 직장인으로 돌아가기 보다는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을 선택하는 데 따른 제약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반면 남성들은 직장인으로서의 역할 이외의 마땅한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남성이 실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여성보다 더 크게 경험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이들 주장의 이면에는 기혼이거나 가정 내 다른 주 수입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혼이거나 이혼자, 여성 자

신이 가정 내 주 수입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 고용몰입이 높고 직업적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건강이나 신체화, 우울, 불안 등의 실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추론은 실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서 성과 결혼유무간의 상호작용, 즉 여성 실직자들의 경우 미혼이 기혼보다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는 예언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더 나아가 교육기회의 향상과 여권신장 노력의 결과로 직업의 가치에 대한 여성 의식 전반에 걸친 변화에 따라 과거와 달리 오늘 날의 여성들은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고용몰입을 가지는 경향이 있으며, 기혼 여성들이라 할지라도 배우자와 동등한 수준의 경제적 기여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Kulik(2001)의 주장에 따르면 가정 내 수입의 급격한 변화라는 측면에서 기혼 여성들 또한 기혼 남성과 마찬가지로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여성의 실직의 영향에 관한 전통적 관점의 설명과 상반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여성의 직업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가정 내 수입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실직 후에 재취업 되는 기회가 남성보다 적으며, 여성들은 실직 상태로 머무는 기간이 남성보다 더 길고 재취업 시 받는 임금수준도 남성에 비해 유의하게 더 낮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Rosen, 1987, Wanberg et al., 2002). Snyder와 Nowark(1984)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재취업시 이전 임금의 60% 수준인 반면, 남성의 경우 이전 임금의 85% 수준으로 여성의 재취업 시 임금이 남성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에 비추어 본다면 여성들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능동적인 구직활동을 하지만 여성들의 재취업에는 고용기회의 부족, 비정규직 등 고용시장의 불안정, 여성의 직업적 역할에 대한 편향된 사회적 기대, 육아, 새로운 직장과의 거리 등의 많은 제약요인들이 가로막고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실적에 따른 여성의 반응은 이러한 개인적 환경이나 직업적 환경에 따라 남성들보다 오히려 더 부정적일 수 있다는 가정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직활동: 구직강도, 공식적 구직활동, 비공식적 구직활동

본 연구에서 구직활동이라는 용어는 구직강도나 직업탐색 행동의 빈도 또는 직업탐색활동에 사용되는 방법들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지금까지의 직업탐색활동과 재취업에 관한 연구들은 구직강도를 일정기간 내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직활동 정도에 대한 평정의 합계나 빈도로 측정해 왔다. Mau와 Kopischke(2001)는 구직에 관한 정보를 어디에서 주로 얻는가에 따라 '구조화된 공식적 정보'와 '사적인 비공식적 정보'로 구분하고 있다. 즉 구조화된 정보는 신문광고, 인터넷, 회사의 광고 그리고 취업대행사를 통해서 얻는 정보를 말하고, 사적인 비공식 정보는 자신을 잘 아는 이전 상사나 동료, 친척, 지인 등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얻는 정보를 의미한다. 이 두 정보원천을 비교한 연구들에 따르면 구직활동에 있어서 가장 흔한 방법이 이러한 비공식적인 사회적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한다(Wanberg, Kanfer & Banas, 2000; Tiziner, Vered & Ophir, 2004). 이들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관계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일수록 유용한 구직정보를 더 많이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구직강도는 구조화된 공식적 구직활동(취업대행사나 신문광고, 인터넷 및 회사와 직접 접촉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행동과 지인들과의 사회적 교류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는 비공식적인 구직활동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직강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구직강도가 높을수록 재취업 속도가 빨랐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Wanberg, Kammeyer & Shi, 2001). 구직강도가 높을수록 더 나은 직장에 취업했다는 증거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Wanberg(1997)는 실직기간 동안의 구직강도가 높을수록, 재취업 후의 직무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Brasher와 Chen(1999)은 직무탐색 기간, 면접의 수, 임금 간의 관계는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Wanberg 등(2000)의 보고에 의하면, 미국의 한 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친구나 가족, 이전 직장의 상사나 동료와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새 직장을 구했다는 응답자가 36.6%였고, 구인광고를 통해서 30.8%, 고용지원센터는 11.5%, 취업대행사 3.3%, 인터넷 2.2%, 기타가 16.5%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 실직자들은 사회적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직방법들을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구직활동에서 성 차이를 검토한 연구들에 따르면 여성들은 남성보다 구직탐색 행동을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예컨대, Leana & Feldman, 1992). Drentea(1998)에 따르면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재취업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인 광고나 취업대행사 등을 이용한 공식적인 구직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이와 비슷하게 Huffman

과 Torress(2001)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들은 친구나 친척과 같은 비공식적 접촉을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여성들은 공식적 구직활동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진 Kulik(2001)의 연구에서는 남녀간의 이런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구직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지고 여성에게도 폭넓은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에 대한 취업의 문호가 과거보다는 많이 넓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남성에 비해서 그 기회는 많이 부족한 편이라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성의 구직강도가 여성보다 더욱 높고, 구직활동에 있어 비공식적 구직활동에서 남녀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여성의 구직강도가 남성에 비해 낮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근거로서, Leana와 Feldman(1992)은 남성들은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 원천을 제거할 수 있는 활동, 즉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한 활동 같은 문제 중심적(통제적) 대처양식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성들은 스트레스를 직접 다루기보다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고독, 불안 등)를 완화시키는 활동을 주로 하는 증상 중심적(정서적) 대처양식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남성의 구직강도가 높고 대처양식에서의 이러한 성차가 생기는 이유는 남성들이 생계를 담당해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역할규범이 강화되어 왔고, 이것이 발달 과정과 사회화 과정에서 일찍부터 내면화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Golombok & Fivush, 1994). 따라서 구직강도에서 성차는 발달과정 상의 차이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혼 실직자에서도 남녀차이가 예상되고, 기혼실직자

에서는 더 큰 남녀차이가 예상된다.

구직강도에서 연령 간 차이를 검토한 연구에 따르면 젊은 구직자들이 나이 든 구직자들보다 더 폭넓고 다양한 구직활동을 보이기 때문에 구직강도가 더 높다고 한다(Huffman & Torress, 2001). 반면에 Warr와 Jackson(1984)은 중·장년층 연령집단이 젊거나 나이 든 양극단의 연령집단보다 직업탐색에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한다고 한다. Rowley와 Feather(1987)는 중·장년층들의 고용몰입이 더 높았고, 이들은 가족부양 등의 의무를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구직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보인다고 한다. Wanberg, Watt 및 Rumsey(1996)의 종단적 연구에서는 실직기간에 대한 예언변인으로 구직활동 유형과 연령을 비교한 결과,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39세 이하 실직자와 40세 이상의 실직자들은 다 같이 높은 구직강도를 보이지만 39세 이하의 실직자들은 실직기간에서 더 짧았다. 이 결과는 구직에서 장년층 실직자들에 대한 연령차별의 가능성도 시사되지만 39세 이하 실직자들의 구직활동이 40세 이상의 구직자들과 구직탐색 방향을 달리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이스라엘 표본을 대상으로 25세 미만, 26-35세, 36-52세 연령집단을 비교한 Kulik(2001)의 연구에서는 26-35세 연령집단과 36-52세 연령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36-52세 연령집단의 구직강도가 더 컸다. 그러나 25세 미만 집단과 36-52세 연령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Kulik(2001)은 36-52세 연령집단의 경우 나이와 신기술의 부족에 따른 구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구직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보았고, 25세 미만의 구직자들은 아직 가족이나 자녀양육의 부담이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

회 초년생으로서 동기화가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구직강도를 예언하는 개인차 연구들에 따르면 구직활동에서 자기 관련 유능성이라 할 수 있는 구직효능감이 구직강도와 정적으로 관련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Ellis & Taylor, 1983; Wanberg, Kanfer & Rotundo, 1999). 또한 고용몰입과 경제적 어려움(Feather & O'Brien, 1987; Wanberg et al., 1999), 사회적 자산(Vinokur & Caplan, 1987), 성취동기, 자존감(Wanberg et al., 2000) 등의 요인들과 구직강도의 관련성이 확인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장년층 실직자들에게서 이들 요인들이 구직강도를 어느 정도 예언하는지 그리고 남녀간의 차이를 보이는지 탐색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종합하면 실직의 반응에 대한 남성과 여성간의 차이를 가정하는 연구들은 여성실직자들이 실직으로 인해 겪게 되는 고통이나 부정적 영향이 남성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날의 여성들은 과거에 비해 일이나 직업에 대한 가치를 높게 두고 있고 가정에서의 재정적 기여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취업에 대한 사회적 제반 여건은 이를 따르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도 남성 못지않게 실직으로 인한 심리적 신체적 건강과 복지(well-being)에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중·장년층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직의 반응(불안, 신체화 우울, 정신건강)과 구직활동(구직강도, 공식적, 비공식적 구직활동)에서의 남녀간 차이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간의 차이가 결혼상태(기혼, 미혼)나 연령에 따라 다르지, 그리고 실직에 대한 반응과 구직활동을

예언하는 것으로 알려진 변인들이 남녀 실직자들을 다르게 예언하는지를 탐색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실직에 대한 반응과 구직강도를 예언하는 것으로 알려진 다양한 변인들을 심리적 특성 변인과 사회·경제적 변인으로 나누어 좀 더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방법

조사 대상자 및 절차

설문조사는 2005년 2월에서 3월까지 2개월 동안, 서울소재 취업전문기관인 1사의 포털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연구의 취지를 안내하고, 실직기간이 2개월 미만인 30대 이상의 중·장년층 실직자들만 지정된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에게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제공하였다. 총 1728명의 실직자가 설문에 응답하였고, 이중 불성실 응답자(57명)와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실직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된 실직자(87명), 만 29세 미만의 응답자(45명)를 제외한 1539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은 1539명의 조사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남녀별로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성별로 볼 때 남성이 74%였고, 여성이 26%였다. 연령은 30대 초반이 64.1%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이상도 약 3.6%가 포함되어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34.8세($SD=5.73$)로 연령분포는 29세~68세였다. 남

표 1.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사례수와 비율

특성	구분	사 례 수 (%)		
		남 성	여 성	전 체
전 체		1139 (74.0)	400 (26.0)	1539 (100)
연 령				
	30대 초반	683 (60.0)	303 (75.8)	986 (64.1)
	30대 후반	236 (20.7)	61 (15.3)	297 (19.3)
	40대 이후	220 (19.3)	36 (9.0)	256 (16.6)
결 혼				
	미혼	433 (38.0)	181 (45.3)	614 (39.9)
	기혼	687 (60.3)	209 (52.3)	896 (58.2)
	이혼	13 (1.1)	7 (1.8)	20 (1.3)
	기타	6 (0.5)	3 (0.8)	9 (0.6)
학 력				
	고졸 이하	193 (16.9)	94 (23.5)	287 (18.6)
	대졸	837 (73.5)	275 (68.8)	1112 (72.3)
	대학원 이상	109 (9.6)	31 (7.8)	140 (9.1)
본인 외 수입원				
	있다	510 (44.8)	295 (73.8)	805 (52.3)
	없다	629 (55.2)	105 (26.2)	734 (47.7)
실직 전 고용형태				
	정규직	951 (83.5)	269 (67.3)	1220 (79.3)
	비정규직	188 (16.5)	131 (32.8)	319 (20.7)
실직유형				
	자발적	735 (64.5)	280 (70.0)	1015 (66.0)
	비자발적	404 (35.5)	120 (30.0)	524 (34.0)
급여수준				
	2천만 미만	297 (26.1)	246 (61.5)	543 (35.3)
	2-3천만 미만	487 (42.8)	121 (30.3)	608 (39.5)
	3-4천만 미만	237 (20.8)	26 (6.5)	263 (17.1)
	4-5천만 미만	75 (6.6)	5 (3.0)	80 (5.2)
	5천만 이상	43 (3.8)	2 (0.5)	45 (2.9)

녀별로 기혼 남성이 60.3%이고, 기혼 여성이 52.3%였다. 실직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79.3%)이 비정규직(20.7%)보다 많았다. 남녀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정규직이 83.5%, 비정규직이 16.5%였고, 여성의 경우에는 정규직이 67.3%, 비정규직이 32.8%가 포함되었다. 실직 이전의 직장에서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대리급이 34.8%로 가장 많았고, 사원, 대리, 과장급을 합하여 약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차장 이상 임원급도 약 16%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3천만 미만의 봉급생활자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자발적 실직자가(66%)가 비자발적 실직자(34%)보다 많았다.

측정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 구성은 총 228문항으로 온라인에서 응답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사용된 모든 척도들은 리커트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점수로 응답을 얻었으며, 각 척도별로 총점을 구한 다음 문항수를 나눈 평균점수를 분석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각 척도별 문항수와 신뢰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실직에 대한 반응

① 불안척도(Spielberg, Gorsuch & Lushene, 1970; 한덕웅, 전점구, 탁진국, 이창호, 이건호, 1993)는 20문항 중 5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Cronbach α)는 .93이었다. ② 신체화 척도(한덕웅 등, 1993)는 8문항으로 신뢰도(α)가 .94였다. ③ 우울척도(Radloff, 1977; 한덕웅 등, 1993)는 5문항으로 신뢰도(α)가 .92였다. 이들 세 개

의 척도는 모두 높을수록 부정적 경험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정신건강(Goldberg, 1972; 신선인, 2001; 신현균, 장재윤, 2003)은 K-GHQ(Korean General Health Questionnaire)의 30 문항 중 12문항을 선택한 것으로 신뢰도(α)가 .87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하다는 의미이다.

구직강도

구직강도(Wanberg et al., 2002)는 10문항이었으며 신뢰도(α)가 .78이었다. 이 척도는 최대 우도 요인추출법과 사각회전(Oblimin)을 사용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에 적합하지 않았던 1개 문항('신문에서 구직광고를 찾아본다.')을 제외한 9개 문항이 두 개의 요인으로 묶였다. 제1요인은 공식적 구직활동이라 명명하였고, '취업대행 회사나 기관에 등록하고 자문을 구한다',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 이력서를 보내거나 지원서를 제출한다', '구직을 위해 인터넷을 검색한다.' 등의 6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이들 6개 문항의 신뢰도(α)는 .75였다. 제2요인은 비공식적 구직활동으로 명명하였고, '직장선택에 관한 정보나 조언을 줄만한 사람에게 추천을 부탁한다.', '친구들이나 친척들의 자문을 구한다.' 등 사회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구직활동을 나타내는 3개의 문항이 포함되었다(예컨대, Wanberg et al., 2000; Tiziner et al., 2004). 이들 3개 문항의 신뢰도(α)는 .72였다. 이들 각 점수는 높을수록 구직강도가 높으며, 구직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리적 특성변인

① 대처행동(김명언, 노연희, 1998)의 연구에서 사용한 19문항 중에 신뢰도에 부적인 영향

을 주는 3문항을 제외하고 총 1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기능적 대처와 역기능적 대처의 2요인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각각의 신뢰도(α)는 .77과 .70이었다. ② 귀인양식(김명연, 장재윤, 조성호, 노연희, 2003)은 내부귀인 4문항(능력, 노력, 기술부족, 업적달성)과 외부귀인 3문항(부실경영, 경기하락, 구조조정)을 사용하였다. 내부귀인과 외부귀인 문항의 신뢰도(α)는 각각 .81과 .67이었다. ③ 고용몰입(Wanberg et al., 2002)은 6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몰입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α)는 .84였다. ④ 구직효능감은 김명연 등(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JOB II Survey (Vinokur & Price, 1991)의 6문항을 사용하였다(예컨대, ‘취업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신뢰도(α)는 .85였다. ⑤ 자존감(Kanfer, Wanberg & Kantrowitz, 2001)은 8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신뢰도(α)는 .79였다. ⑥ 생애만족척도(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는 5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신뢰도(α)는 .72로 나타났다. ⑦ 강인성척도(이민규, 2000; Maddi, 2002)는 18문항 중 8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신뢰도(α)는 .78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변인

① 재취업 제한요건은 Wanberg 등(2002)의 연구에서 사용한 6문항 중에 5문항(예컨대, ‘일하는 동안 아이를 맡길 마땅한 곳이 없다.’)과 본 연구자들이 자체 개발한 6문항(예컨대, ‘학벌 때문에 재취업하기 힘들다.’)을 합하여 총 11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재취업에 제한 요건을 많이 지각한다는 것이다. 신뢰도(α)는 .72로 나타났다. ② 사회적 지

지는 본 연구진이 자체 개발한 2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높은 점수는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α)는 .62로 나타났다. ③ 사회적 자산은 Wanberg 등(2002)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신뢰도(α)는 .75였다. ④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는 본 연구자들이 자체 개발한 2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높은 점수는 정부의 대한 높은 지원기대를 의미한다. 신뢰도(α)는 .84로 나타났다. ⑤ 고용기회지각은 Wanberg 등(2002)의 연구서 사용하였던 2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고용기회가 적다고 지각한다는 것이다. 신뢰도(α)는 .52였다. ⑥ 경제적 어려움(Wanberg et al., 2002) 역시 2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신뢰도(α)는 .72였다. 높은 점수일수록 경제적 어려움을 높게 지각한다는 것이다. ⑦ 해고과정의 공정성 지각은 본 연구자들이 자체 개발한 4문항으로 측정이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고 절차를 공정하게 지각한다는 것이다. 신뢰도(α)는 .68이었다.

결 과

실직반응과 구직활동에서 남녀간 차이분석.

본 연구에서는 실직에 대한 반응으로서 실직자들의 불안, 신체화, 우울, 정신건강과 구직활동을 중심으로 남녀성별에 따른 평균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2는 남녀별로 실직에 대한 반응, 구직활동, 심리적 특성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것이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직에 대한 반응과 구직활동에서의 남녀간 차이를 알아 본 결

표 2. 성별에 따른 실직에 대한 반응, 구직활동, 심리, 사회경제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SD)

	남성 (N=1139)	여성 (N=400)	전체 (N=1539)	<i>t</i>
실직에 대한 반응				
불안	3.35(.89)	3.34(.88)	3.35(.89)	-.18
신체화	2.87(.91)	2.98(.90)	2.90(.91)	-1.99*
우울	3.06(.93)	3.21(.95)	3.10(.94)	-2.74**
정신건강	2.96(.84)	2.84(.82)	2.92(.84)	2.48**
구직활동				
구직강도	3.46(.55)	3.43(.50)	3.45(.54)	.99
공식적 구직활동	3.67(.61)	3.67(.56)	3.67(.60)	.35
비공식적 구직활동	3.05(.78)	2.96(.78)	3.02(.78)	2.02*
심리적 특성변인				
순기능적 대처양식	3.54(.54)	3.57(.48)	3.54(.52)	-.98
역기능적 대처양식	2.29(.69)	2.02(.60)	2.22(.68)	7.16***
내적귀인	2.21(.73)	2.27(.70)	2.22(.72)	-1.41
외적귀인	2.99(.70)	2.88(.71)	2.96(.71)	2.53**
고용몰입	3.87(.69)	3.81(.67)	3.85(.68)	1.56
구직에 대한 효능감	3.36(.62)	3.24(.61)	3.33(.623)	3.34***
생애만족	2.40(.69)	2.41(.69)	2.40(.69)	-.34
자존감	3.20(.55)	3.14(.58)	3.19(.56)	1.84
강인성	3.56(.53)	3.57(.49)	3.57(.52)	-.30
사회·경제적 변인				
재취업제한요건	2.62(.52)	2.78(.50)	2.66(.52)	-5.40***
사회적 지지	3.21(.81)	3.23(.81)	3.21(.81)	-.39
사회적 자산	2.90(.77)	2.73(.81)	2.85(.79)	3.82***
정부지원에 대한 기대	2.26(.86)	2.26(.84)	2.26(.85)	.18
고용기회지각	3.06(.78)	2.98(.79)	3.04(.79)	1.87
경제적 어려움	3.71(.85)	3.57(.94)	3.67(.88)	2.59**
해고과정의 공정성 지각	2.37(.70)	2.27(.65)	2.35(.68)	2.74**

* $p < .05$, ** $p < .01$, *** $p < .001$

과, 우울과 정신건강에서 남녀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구직활동에서 구직강도와 공식적 구직활동의 경우 남녀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비공식적 구직활동의 경우 남녀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실직에 대한 반응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불안의 경우, 여성실직자와 남성 실직자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신체화, 우울, 정신건강에서 여성 실직자가 남성 실직자에 비해서 실직으로 인한 부정적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신체화 증상을 더 많이 보고하였으며,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며, 정신건강에서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심리적 신체적 건강 면에서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더 많이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구직활동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구직탐색강도 척도(Wanberg et al., 2002)를 두 개의 하위 척도로 구분하여 구직강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척도 점수인 구직강도에서 남녀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하위 척도의 하나인 공식적 구직활동에서 구직강도의 차이도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공식적 구직활동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 실직자들이 직업탐색과정에서 여성 실직자들보다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구직활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실직에 대한 반응과 구직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선행 연구들에서 확인된 다양한 변인들을 함께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들 각 변인들을 개인적 특성변인과 사회·경제적 변인으로 구분하여 표 2에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 포함된 각 변인에서 남

녀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심리적 특성변인에서 역기능적 대처양식, 외적귀인, 구직에 대한 효능감 지각에서 남녀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남성 실직자들이 여성 실직자들보다 역기능적 대처를 더 많이 하며, 실직에 대한 외부귀인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직 효능감 지각에서 남성 실직자들이 여성 실직자들보다 더 높은 효능감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변인들 중에서는 재취업 제한요건, 사회적 자산, 고용기회지각, 경제적 어려움, 해고 과정의 공정성 지각 등이 남녀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유의하게 나타난 재취업 제한요건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 실직자들이 남성 실직자들에 비해서 취업에 대한 제약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재취업 제한요건은 육아, 남녀차별, 시간구조, 능력 등에서 재취업을 가로막는 개인적 환경이나 직업적환경의 제약요인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결과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재취업 시에 개인적, 직업적 제약사항들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여성 실직자들은 남성 실직자들에 비해서 해고 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성을 더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 실직자들은 여성 실직자들에 비해서 사회적 자산 즉, 재취업을 도와 줄 사람이나 인맥이 더 많은 것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남성 실직자들은 여성 실직자들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을 더 많이 보고하는 것으로 보아, 재정적 곤란을 더 크게 지각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연령에 따른 실직반응과 구직활동에서의 남녀 차이 비교

본 연구에서는 실직에 대한 반응과 구직활동에서 성차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종속 측정치별로 각각 2(성별: 남성, 여성) × 2(연령: 29-34세, 35-39세, 40세 이상)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은 성 및 연령별로 실직에 대한 반응과 구직활동에서의 각 종속 측정치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것이다. 우선 실직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불안의 경우, 연령의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나, $F(2, 1533)=4.47, p<.01$. 성별 및 성별×연령의 상호작용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Scheffe 사후검증을 통해 연령의 주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 본 결과, 30대 후반과 40대 이상의 실직자들이 30대 초반의 실직자들에 비해 불안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화의 경우, 연령의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며, $F(2, 1533)=5.34, p<.01$, 성별의 주효과가 유의 경향을 나타냈다, $F(1, 1533)=3.71, p<.10$. 반면 성별×연령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의 주효과에 대한 사후비교분석(Scheffe 검증)을 보면, 30대 후반이 30대 초반의 실직자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신체화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의 주효과를 보면 여성($M=2.98, SD=.92$)이 남성($M=2.88, SD=.91$)들에 비해서 더 많은 신체화 증상을 겪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30대 후반의 실직자들과 여성들이 신체화 증상을 더 많이 겪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울의 경우를 살펴보면, 성별과 연령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는 모두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성별과 연령의 주효과들은 모두 다소의 유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여성($M=3.21, SD=.95$)이 남성($M=3.06, SD=.93$)에 비해서 더 우울한 경향을 보였으며($p<.10$), 연령에 대한 Scheffe 사후검증 결과는 30대 후반과 40대 이

후의 실직자들이 30대 초반의 실직자들에 비해 더 많은 우울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모두 $p<.06$).

정신건강(K-GHQ)의 경우, 연령의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며, $F(2, 1533)=3.66, p<.05$, 성별의 주효과는 유의 경향을 보였다, $F(1, 1533)=2.65, p<.10$. 그러나 성별×연령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유의하게 나타난 주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직에 대한 반응의 다른 측정치들과 마찬가지로 Scheffe 사후검증에서 30대 후반의 실직자들이 30대 초반의 실직자들에 비해서 정신건강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주효과에 있어서는 여성($M=2.84, SD=.82$)이 남성($M=2.96, SD=.84$)에 비해서 유의하게 더 낮은 정신건강을 나타냈다.

한편 구직활동에서의 성과 연령의 효과를 살펴보면, 표 3에서와 같이 구직강도의 경우, 연령과 성별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공식적 구직활동과 비공식적 구직활동을 구분하여 연령과 성별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공식적 구직활동에 있어서는 연령과 성별의 주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나 연령×성별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 1533)=3.31, p<.05$. 이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40대 이후의 실직자들에서 남녀간의 차이가 유의하였으나, $t(254)=1.97, p<.05$, 30대 초반과 30대 후반의 실직자들에서 남녀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남성과 여성 실직자 내에서 연령간 차이를 알아 본 결과, 남성 실직자들에서 연령간의 차이가 유의하였으나, $F(2, 1136)=3.80, p<.05$, 여성 실직자들에서 연령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표 3. 성별과 연령에 따른 실직반응 및 구직활동의 평균과 표준편차(SD)

	남성(N=1139)			여성(N=400)		
	30대 초 (N=683)	30대 후 (N=236)	40대 이상 (N=220)	30대 초 (N=303)	30대 후 (N=61)	40대 이상 (N=36)
실직에 대한 반응						
불안	3.25(.86)	3.25(.86)	3.45(.87)	3.25(.86)	3.25(.86)	3.25(.86)
신체화	2.81(.89)	3.00(.94)	2.96(.93)	2.93(.91)	3.16(.87)	3.10(1.02)
우울	2.98(.92)	3.17(.94)	3.20(.90)	3.20(.974)	3.30(.92)	3.21(.94)
정신건강	3.03(.84)	2.85(.85)	2.85(.80)	2.86(.84)	2.69(.68)	2.86(.89)
구직활동						
구직강도	3.41(.54)	3.50(.54)	3.56(.58)	3.42(.48)	3.49(.553)	3.37(.63)
공식적 구직활동	3.63(.61)	3.70(.61)	3.75(.63)	3.68(.54)	3.66(.55)	3.52(.73)
비공식적 구직활동	2.99(.76)	3.08(.80)	3.05(.78)	2.90(.75)	3.16(.86)	3.10(.79)

않았다. 즉 남성들의 경우 40대 이후의 실직자들이 30대 초반의 실직자들보다 공식적 구직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식적 구직활동의 경우는 연령의 주효과만 유의하였으며, $F(2, 1533)=6.78, p<.001$, 성별과 성별×연령의 상호작용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의 주효과에 대한 사후비교에 따르면 30대 후반($M=3.10, SD=.81$)과 40대 이후($M=3.17, SD=.80$)의 실직자들이 모두 30대 초반($M=2.96, SD=.76$)의 실직자들에 비해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비공식적 구직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선호하는 구직활동 유형이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구직활동유형(공식적, 비공식적)을 반복 측정변인으로 삼아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구직활동 유형에서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며, $F(1, 1537)=773.80, p<.001$, 성별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1, 1537)=2.01, ns$. 그러나 성별×구직활동 유형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경향을 보였다, $F(1, 1537)=3.55, p<.06$. 유의한 경향을 보인 성별×구직활동 유형간의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서 공식적 구직활동과 비공식적 구직활동 간의 차이가 모두 유의하였다. 즉 남성 실직자들과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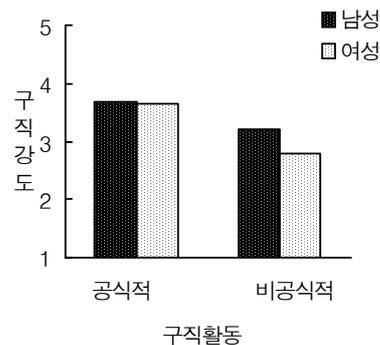


그림 1. 구직강도에 있어서 성별×구직활동 유형간의 상호작용효과

성 실직자들 모두 비공식적 구직활동보다 공식적 구직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모두 $p < .001$). 또한 구직활동 유형에서 남녀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공식적 구직활동에서 남녀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t(1537)=.04, ns$, 비공식적 구직활동에서 남녀간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1537)=2.02, p < .05$. 이들 결과는 남성과 여성 모두 비공식적 구직활동보다는 공식적 구직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비공식적 구직활동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남성들이 공식적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비공식적 구직활동(지인들이나 친척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추천을 부탁하는 것)을 병행하고 있는데 비해서 여성들은 주로 공식적 구직활동(이력서를 신경 써서 준비한다든지 취업 대행사에 등록,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광고를 검색하는 것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결혼유무 따른 실직반응과 구직활동의 남녀차이 비교

결혼유무에 따라 실직에 대한 반응과 구직활동에서 남녀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종속측정치별로 각각 2(성별: 남성, 여성)×2(결혼유무: 미혼, 기혼)의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는 성별 및 결혼유무별로 실직에 대한 반응과 구직활동에서의 각 종속측정치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것이다. 이 분석에서는 이혼(20명)과 기타(9명)로 응답한 실직자는 그 사례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한 1510명의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표 4는 실직에 대한 반응과 구직활동의 각 종속측정치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것이다. 우선 실직에 대한 반응 중 불안의 경우를 살펴보면 성별과 결혼유무의 주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결혼유무의 상호작용 또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그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결혼유무와 성별에 따른 실직반응 및 구직활동의 평균과 표준편차(SD)

	남성(N=1120)		여성(N=390)	
	미혼(N=433)	기혼(N=687)	미혼(N=181)	기혼(N=209)
실직에 대한 반응				
불안	3.26(.89)	3.40(.88)	3.36(.92)	3.31(.86)
신체화	2.86(.90)	2.88(.92)	2.96(.96)	2.99(.90)
우울	3.09(.95)	3.04(.91)	3.31(.99)	3.12(.92)
정신건강	2.91(.84)	3.00(.83)	2.77(.88)	2.90(.78)
구직활동				
구직강도	3.38(.54)	3.51(.56)	3.41(.52)	3.44(.49)
공식적 구직활동	3.54(.58)	3.66(.62)	3.54(.58)	3.54(.58)
비공식적 구직활동	2.94(.77)	3.11(.78)	2.85(.79)	3.04(.76)

다, $F(1, 1506)=3.20, p<.10$. 이를 단순 주효과 분석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 본 결과 성별과 결혼유무간의 상호작용 경향은 남성에서 미혼과 기혼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1118)=-2.61, p<.01$. 즉, 남성 실직자들 가운데 기혼자들($M=3.40, SD=.88$)이 미혼자들($M=3.26, SD=.89$)에 비해 더 불안을 많이 경험하는 경향이 있었다.

신체화의 경우는 성별의 주효과만 유의하였고, $F(1, 1506)=4.17, p<.05$, 결혼유무의 주효과와 성별×결혼유무의 상호작용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의 주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M=2.98, SD=.93$)이 남성($M=2.87, SD=.91$)들보다 신체화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경우는 성별과 결혼유무의 주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F(1, 1506)=7.61, p<.01, F(1, 1506)=4.31, p<.05$. 그러나 성별×결혼여부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유의하게 나타난 주효과들을 살펴보면 성별의 주효과는 여성의 우울 점수가 평균 $3.21(SD=.96)$ 이었고, 남성의 우울 점수가 평균 $3.06(SD=.92)$ 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유무에 따른 주효과에서는 미혼이 평균 $3.15(SD=.97)$ 와 기혼이 평균 $3.06(SD=.91)$ 의 우울점수를 보여, 미혼 실직자들이 기혼 실직자들보다 더 높은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성별과 결혼유무의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나, $F(1, 1506)=5.69, p<.05, F(1, 1510)=4.57, p<.05$, 성별×결혼여부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먼저 성별의 주효과를 좀더 살펴보면 여성이 평균 $2.84(SD=.83)$ 의 K-GHQ 점수를 보였고, 남성이 평균 $2.96(SD=.83)$ 의 K-GHQ 점수를 보

였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정신건강에서도 더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결혼유무에 따른 주효과의 경우, 기혼인 실직자의 평균 K-GHQ 점수는 $2.97(SD=.82)$ 이었고, 미혼인 실직자의 평균 K-GHQ 점수는 $2.87(SD=.85)$ 이었다. 이는 기혼 실직자들이 미혼 실직자들보다 정신건강에서 더 좋은 것을 의미한다.

구직강도의 경우, 결혼유무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F(1, 1506)=6.04, p<.01$. 그러나 성별의 주효과와 성별×결혼유무의 상호작용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유무의 주효과를 좀더 살펴보면 기혼 실직자들이 평균 $3.49(SD=.54)$, 미혼 실직자들이 평균 $3.39(SD=.53)$ 의 구직강도를 보였다. 이는 기혼 실직자들이 미혼 실직자들보다 더 적극적인 구직탐색활동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구직강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공식적 구직활동과 비공식적 구직활동으로 구분하여 구직활동 유형별로 성별과 결혼유무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았다. 우선 공식적 구직활동의 경우 성별과 결혼유무의 주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별×결혼유무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F(1, 1506)=3.72, p<.05$. 유의하게 나타난 상호작용 효과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단순 주효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런 상호작용 효과는 주로 남성 실직자들 중 기혼과 미혼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들 중 기혼인 실직자($M=3.70, SD=.62$)들이 미혼인 실직자($M=3.61, SD=.61$)들에 비해서 공식적 구직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1118)=-2.63$. 반면 여성들의 경우 기혼과 미혼 실직자들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혼에서 남녀간 차이와 미혼에서 남녀

간 차이도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비공식적 구직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결혼 유무의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며, $F(1, 1506)=14.54, p<.001$, 성별의 주효과는 유의경향을 보였다, $F(1, 1506)=3.11, p<.10$. 그러나 성별×결혼유무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결혼유무에 따른 주효과를 살펴보면 기혼 실직자($M=3.09, SD=.78$)들이 미혼 실직자($M=2.92, SD=.77$)들에 비해서 비공식적 구직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 실직자들이 미혼 실직자들에 비해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구직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남녀별 실직반응과 구직강도의 예언변인들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남성과 여성에서 실직에 대한 반응과 구직강도를 예측하는 변인이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심리적 특성 변인과 사회·경제적 변인들을 예언변인으로 그리고 실직의 종류, 결혼상태, 연령, 학력, 이전 고용형태, 본인 외 수입원 유무를 통제변인으로 삼아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통제변인들은 가변수(dummy variable)로 변환하였다. 여기서 실직에 대한 반응의 준거변인 중 정신건강은 점수가 클수록 정신건강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5와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5는 남성 실직자에 대해서, 표 6은 여성 실직자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5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실직으로 인한 부정적 반응에 대해서는 역기능적 대처양식, 자존감, 순기능적 대처양식, 생애만족, 고용몰입, 취업제한요건, 경제적 어려움의 순으로 예언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

며, 통제변인 가운데서는 실직의 종류(자발적, 비자발적), 연령, 이전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의 순으로 예언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의 경우는 역기능과 순기능적 대처양식, 생애만족, 취업제한요건, 경제적 어려움, 고용몰입, 자존감, 사회적지지 등의 순으로 예언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남녀 모두 순기능적 대처양식을 많이 보일수록 불안, 신체화, 우울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할 것이며, 일반 정신건강에서도 나쁠 것이라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검토가 논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남녀를 비교해 보면 남녀 모두 실직에 대한 반응을 정적(+)으로 예언하는 것은 심리적 특성변인에서 역기능적 대처, 순기능적 대처, 고용몰입이 그리고 사회경제적 변인에서는 구직에 대한 효능감과 경제적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신체화,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고, 일반 정신건강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실직으로 인한 반응을 부정(-)으로 예언하는 것은 생애만족과 자존감이었다. 즉 생애만족과 자존감이 높을수록 불안, 신체화, 우울이 낮으며, 정신건강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녀간의 중요한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에게는 자존감이 순기능적 대처나 생애만족보다 개인의 복지를 더 잘 예측하는(실직에 대한 반응을 부정(-)으로 잘 예언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지만 여성에게는 자존감보다 생애만족, 취업제한요건, 고용몰입이 더 중요한 예측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성에게는 구직에 대한 효능감과 정부지원에 대한 기대가 실직반응에 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표 5. 남성 실직자의 실직반응과 구직강도를 예언하는 변인들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단계	실직에 대한 반응				구직활동
	불안(β)	신체화(β)	우울(β)	정신건강(β)	구직강도(β)
1 통제변인					
실직의 종류	.109***	.067*	.104***	-.102**	.115***
결혼상태	.024	-.015	-.079*	.098**	.081*
연령	.105**	.058	.116***	-.111***	.011
학력	-.030	.010	.012	.021	-.006
이전 고용형태	.070	.092**	.090**	-.106***	.060*
본인 외 수입원	.050	.029	.034	.009	.019
	$R^2=.039$	$R^2=.018$	$R^2=.035$	$R^2=.038$	$R^2=.029$
2 심리적 특성변인					
순기능적 대처양식	.235***	.158***	.119***	-.117***	.337***
역기능적 대처양식	.232***	.280***	.255***	-.204***	-.002
내부귀인	.004	-.037	.027	-.023	-.015
외부귀인	.053*	.041	.062*	-.036	.039
고용몰입	.211***	.104***	.107***	-.132***	.244***
구직에 대한 효능감	.001	.074*	.076*	-.070*	.194***
생애만족	-.119***	-.123***	-.163***	.169***	-.035
자존감	-.177***	-.194***	-.262***	.324***	-.022
강인성	-.040	-.091**	-.040	.050	-.006
사회·경제적 변인					
취업제한요건	.060*	.145***	.107***	-.119***	.096***
사회적 지지	-.037	-.083*	-.056	.056	.059*
사회적 자산	-.045	-.020	-.046	.024	.070**
정부지원에 대한 기대	-.066**	-.024	-.046	.071**	.003
고용기회지각	-.002	-.010	-.024	.013	.046
경제적 어려움	.163***	.086**	.094***	-.083**	.073**
해고과정의 공정성 지각	-.061*	-.006	-.026	.008	.049*
	$R^2=.396$	$R^2=.335$	$R^2=.412$	$R^2=.433$	$R^2=.464$

* $p<.05$, ** $p<.01$, *** $p<.001$; (β) 는 표준화 계수임.

표 6. 여성 실직자의 실직반응과 구직강도를 예언하는 변인들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단계	실직에 대한 반응				구직활동
	불안(β)	신체화(β)	우울(β)	정신건강(β)	구직강도(β)
1 통제변인					
실직의 종류	.149**	.099*	.136**	-.096*	.056
결혼상태	-.026	-.008	-.099	.083	.066
연령	.028	.074	.048	-.049	-.086
학력	-.021	.031	-.011	.038	.016
이전 고용형태	.025	.061	.058	-.052	.071
본인 외 수입원	.056	.052	.072	-.085	.009
	$R^2=.031$	$R^2=.028$	$R^2=.044$	$R^2=.034$	$R^2=.015$
2 심리적 특성변인					
순기능적 대처양식	.264***	.140**	.165**	-.109*	.369***
역기능적 대처양식	.281***	.283***	.290***	-.257***	.016
내부귀인	.018	.018	.009	.010	.041
외부귀인	.005	.086	.008	.035	.034
고용몰입	.180***	.034	.062	-.114**	.133**
구직에 대한 효능감	-.071	.084	-.059	.075	.241***
생애만족	-.132**	-.118*	-.142**	.167***	-.043
자존감	.002	.009	-.136**	.240***	-.064
강인성	-.084	-.107*	-.001	.053	.049
사회·경제적 변인					
취업제한요건	.100*	.231***	.105*	-.083	.129**
사회적 지지	-.093*	-.093*	-.063	.012	.098*
사회적 자산	-.076	-.055	-.047	.053	.102*
정부지원에 대한 기대	-.029	.030	.004	-.008	-.029
고용기회지각	-.066	-.070	-.008	.055	.072
경제적 어려움	.212***	.178**	.135**	-.091*	.109*
해고과정의 공정성 지각	-.062	-.066	-.046	.084*	-.036
	$R^2=.449$	$R^2=.370$	$R^2=.382$	$R^2=.433$	$R^2=.437$

* $p < .05$, ** $p < .01$, *** $p < .001$; (β) 는 표준화 계수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예측변인이었지만 여성에게는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회적 지지요인이 더 중요한 예측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변인들 중에 주목을 끄는 것은 심리적 특성 변인 중에 구직에 대한 효능감이었다. 전체실직자에 대한 추가적 분석에서 구직에 대한 효능감은 신체화만을 정적(+)으로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녀별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는 남성 실직자의 경우 신체화와 우울의 증가와 관련되었고 일반 정신건강에서의 감소와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여성 실직자의 경우 신체화의 증가와 관련이 있지만, 불안과 우울의 감소 그리고 일반 정신건강의 호전과 관련이 있었다. 한편 자존심의 경우 남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인인데 비해 여성들에게는 전체적인 예언력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불안 및 신체화에 대한 예언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직강도에 있어서는 남녀 모두 순기능적 대처양식이 구직강도를 가장 잘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외의 변인들에 있어서 남녀간의 차이가 드러났다. 우선 남성에게서 구직강도를 잘 예언해 주는 변인들로, 고용몰입, 구직에 대한 효능감, 사회적 지지, 재취업제한요건, 경제적 어려움의 순으로 정적(+)인 예언을 하였다. 반면 여성들의 경우는 심리적 특성변인으로 구직에 대한 효능감, 고용몰입, 그리고 사회·경제적 변인으로 경제적 어려움, 취업제한 요건, 구직에 대한 효능감, 재취업제한요건, 사회적 자산, 경제적 어려움 순으로 구직강도를 정적(+)으로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반응을 예측하는 통제변인들 가운데 여성의 경우는 실직의 종류(자발적 실직, 비자발

적 실직)와 결혼유무(기혼, 미혼)가 실직에 대한 반응을 잘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의 경우는 실직의 종류에서 여성과 다르지 않았으나 연령과 이전의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가 결혼유무보다 더 중요한 요인일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구직강도를 예측하는 통제변인들 가운데는 남성의 경우, 실직의 종류와 결혼 상태가 중요한 예측요인이었던 반면에, 여성의 경우,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연령이 구직강도를 부정(-)으로 예언하는 경향을 보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실직 후 2개월 미만인 29세 이상의 남녀 실직자를 대상으로 실직에 따른 반응(불안, 신체화, 우울 및 정신건강)과 구직활동 정도(구직강도, 공식적 구직활동, 비공식적 구직활동), 심리적 특성변인들, 사회·경제적 변인 등 다양한 변인들에 대해 남녀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여러 영역에서 남녀간의 차이를 보였다.

실직에 따른 반응에서 전반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실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 실직자들은 남성 실직자들에 비해 우울과 신체화 증상을 더 많이 겪고 있으며, 일반 정신건강(K-GHQ)에서도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구직탐색활동 정도를 나타내는 구직강도에서는 남녀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를 공식적 구직활동과 비공식 구직활동을 구분해서 볼 때, 여성들은 사회적 관계망을 통한 비공식 구직활동이 남성보다 적었고, 주로 공식적 구직활동에 치중한다는 것이 밝혀

졌다.

심리적 특성변인 중에는 ‘고용몰입’에서 남녀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구직에 대한 자기 효능감’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과 여성이 일이나 직업이 갖는 가치를 중시하는 정도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여성들이 구직에 필요한 기술이나 정보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고 성공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에 대한 확신감이 남성에 비해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사회·경제적 변인 중에는 재취업제한요건, 사회적 자산, 경제적 어려움, 해고과정의 공정성 지각 등에서 남녀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특히 여성 실직자들이 남성 실직자들에 비해서 재취업 제한요건들을 더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새로운 직장과의 거리나 육아, 직종이나 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 재취업 시 고려되는 다양한 제약요인들을 더 크게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적게 겪고 있으며, 역기능적 대처양식을 더 적게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 과정을 더 불공정한 것으로 지각하고, 인맥이나 혈연과 같은 사회적 자산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여성 실직자들이 가정 내 주 수입원이 아니며 배우자의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직업을 갖는 것이 여성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지 못하며, 실직 후 직장인에서 아내와 어머니로의 역할중심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실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남성에 비해 적게 받을 것이라는 주장(예컨대, Kasl & Cobb, 1979; Bartell & Bartell, 1985; Warr & Parry, 1982)과 상반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주로 미

혼이 아닌 기혼 여성 실직자들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기혼 여성실직자들이 남성 실직자들보다 실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더 적게 받는지를 검증해 필요가 있었다. 결혼유무에 따른 실직반응의 남녀차이를 검토해 본 결과, 불안, 신체화, 우울, 일반 정신건강 등에서 대체로 결혼유무와 성별의 주효과만 유의하였고, 결혼유무×성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즉 기혼 실직자들이 미혼 실직자들에 비해 우울, 정신건강에서 실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더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배우자나 가족의 지지에 따른 완충효과일 가능성이 크며, 기혼 남성들 역시 미혼 남성이나 여성들보다 부정적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기혼 여성에게만 독특하게 나타난 결과는 아닌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실직반응에서 남녀차이를 검토하였다. 연령에 따른 남녀차이에서 연령과 성별의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며, 연령×성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 분석에서 연령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났으며, 35-39세 연령대 및 40대 이후 연령대가 29-34세 연령대 보다 실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5세 이상의 중·장년층이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더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결과는 중·장년층 실직자들이 가족에 대한 의무나 책임 때문에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재정적 스트레스가 가장 크며 건강에서 급격한 손상이 보이는 반면, 비교적 젊은 실직자는 가족에 대한 의무나 책임을 적게 느끼고, 실직의 긍정적 측면인 자기개발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다는 Kulik(2000)과 Wanberg 등(2002)의 결과와 일치한다.

실직에 대한 반응에 관한 지금까지의 결과

는 본 연구의 가정과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여성 실직자들이 겪는 부정적 경험은 직업의 가치에 대한 여성 의식 전반에 걸친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욕구는 과거와 달리 크게 증가하였으나 여성의 전통적 역할에 대한 규범적 기대, 서비스나 임시직과 같은 협소한 진출분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직장과의 거리, 재취업 시 임금 저하의 우려 등 여성이 재취업을 위해 극복해야 할 제약요인들은 달라진 점이 없으며 사회 문화적 요인은 그 성숙되지 못한 때문이라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고용몰입에서 남녀 차이가 크지 않았고, 여성이 재취업 제한요인을 더 크게 지각하였으며, 고용기회지각도 유의경향을 보였다는 것은 본 연구의 이러한 주장을 지지한 것이다. 이는 Kulik(2001)과 Leana와 Feldman(199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차연구에서 여대생이 정신건강과 구직 스트레스에 모두 취약했으며,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같은 사회 문화적 원인일 것이라는 장재윤 등(200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여성 실직자이나 장년 실직자 등 사회적 소수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실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Leana와 Feldman(1992)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들을 보였다.

한편 구직활동에서 남녀차이를 알아 본 결과, 구직강도와 공식적 구직활동에서는 남녀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비공식적 구직활동에서는 남녀간 차이가 유의하였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비공식적 구직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은 공식적 구직활동과 비공식적 구직활동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여성의 경우 비공식적 구직활동에 비해

공식적 구직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ana와 Feldman(1991)에 따르면 남녀간의 대처양식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것이 구직강도에서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한다. 남성들은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 원천을 제거할 수 있는 활동, 즉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한 활동 같은 문제 중심적(통제적) 대처양식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성들은 스트레스를 직접 다루기보다는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증상(고독, 불안 등)을 완화시키는 활동을 주로 하는 증상 중심적(정서적) 대처양식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대처양식에서의 이러한 성차가 생기는 이유는 남성들이 생계를 담당해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역할규범이 강화되어 왔고, 이것이 발달 과정과 사회화 과정에서 일찍부터 내면화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Golombok & Fivush, 1994). 본 연구의 결과로 비추어보면, 비공식적 구직활동에서의 이러한 성차는 남성이 여성보다 다양한 구직방략을 동원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남성은 어린 시절부터 대외적 활동을 남성적인 것으로 강화시켜 왔고, 목표를 달성을 위해 이루어지는 비공식적 대인관계에 대해 허용적이고, 이상적 남성상을 확인받는 하나의 도구로 여기기 때문에 다양한 대인기술들을 가졌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

구직활동이 결혼유무에 따른 성차를 보이는가를 검토한 결과, 공식적 구직활동에서 성별과 결혼유무의 상호작용만이 유의하였다. 그러나 이 상호작용효과는 남성에서 기혼과 미혼의 차이에 기인하였다. 즉 기혼남성이 미혼남성보다 구직강도가 더 높았다. 구직강도와 비공식 구직활동에 있어서는 결혼유무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 이것 역시 기혼이 미혼보다

높았다. 비공식적 구직활동에서 연령에 따른 성차를 확인한 결과, 구직강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성과 연령간의 상호작용효과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호작용은 40대 이상 연령대에서의 남녀 차이에 기인하였다. 전반적으로 35-39 연령대와 40대 이상의 실직자들이 공식적 구직활동과 비공식적 구직활동에서 모두 29-34세 연령대의 실직자들보다 이들 활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실직에 대한 반응과 구직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을 검토해 본 결과, 남녀 모두에게서 불안, 신체화, 우울, 정신건강과 같이 실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증가를 예언하는 선행변인들로는 심리적 특성변인들 가운데서 역기능적 대처, 순기능적 대처, 고용몰입이 그리고 사회·경제적 변인들 가운데서는 구직에 대한 효능감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실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감소를 예언하는 것은 생애만족과 자존감이었다. 즉 생애만족과 자존감이 높을수록 불안, 신체화, 우울이 낮으며, 정신건강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녀간의 중요한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에게는 자존감이 순기능적 대처나 생애만족보다 개인의 복지를 더 잘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지만, 여성에게는 자존감보다 생애만족, 재취업 제한요건, 고용몰입이 더 중요한 예측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성에게는 구직에 대한 효능감과 정부지원에 대한 기대가 실직반응에 정적 혹은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예측변인이었지만 여성에게는 이들 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지지요인이 더 중요한 예측요인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남녀별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구직에 대한 효능감'이 남성 실직자

의 경우 신체화 및 우울의 증가와 관련되고 (+) 일반 정신건강에서 감소와 관련(-)이 있었으나, 여성 실직자의 경우 신체화에서는 남성과 마찬가지로였지만, 불안과 우울의 감소(-) 그리고 일반 정신건강에서의 호전(+)과 관련이 있었다. 이는 구직에 대한 효능감이 여성에게는 전반적으로 심리적 건강을 호전시키는 쪽으로 관련이 있는 반면, 남성에게는 구직효능감이 심리적 건강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관련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구직강도에 있어서는 남녀 모두 순기능적 대처양식이 구직강도를 가장 잘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외의 변인들에 있어서 남녀간의 차이가 드러났다. 우선 남성에게서 구직강도를 잘 예언해 주는 변인들로, 고용몰입, 구직에 대한 효능감, 사회적 지지, 재취업 제한요건, 경제적 어려움의 순으로 정적인 예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들의 경우는 심리적 특성변인으로 구직에 대한 효능감, 고용몰입, 그리고 사회·경제적 변인으로 경제적 어려움, 재취업 제한요건, 사회적 자산보다는 구직에 대한 효능감, 재취업 제한요건, 경제적 어려움 순으로 구직강도를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실직에 대한 반응에 대한 선행요인들을 검토한 결과 역기능적 대처와 마찬가지로 순기능적 대처양식이 실직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들을 정적으로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역기능적 대처뿐만 아니라 순기능적 대처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우울이 높았고, 일반 정신건강에서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일반적으로 통제지향적인 순기능적 대처방략은 정신건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와 상반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능적 통제의 대처방략과 역기능적 회피방략은

각기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Lazarus, 1993). 예컨대 Leana와 Feldman (1992)은 실직기간 중에 높은 구직강도를 가진 사람이 구직에 반복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리적 건강과 부적으로 관련될 수 있다고 한다. 구직활동이 단기적으로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실직 기간이 2개월 미만이었기 때문에, 구직에 대한 동기가 실직 기간이 긴 실직자들에 비해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순기능적 대처의 부적효과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앞으로 종단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가 가진 몇 가지 제한점과 앞으로의 후속 연구들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취업에 대한 여성의 가치관 변화와 이에 따르지 못하는 사회적 실상 때문에 전통적 관점과 달리 여성들이 실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취업에 대한 여성의 가치관 변화나 고정관념을 하나의 변수로 다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통적 관점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이라 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보다 직접적 검증을 위해 앞으로의 연구는 일과 가정 중 어디에 가치의 중심을 두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고용몰입의 정도에 따른 실직반응의 남녀차이를 비교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직업이나 실직에 대한 고정관념을 알아봄으로써 전통적 관점과의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층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 30대 초 연령대의 실직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연구는 연령별, 성별로 좀더 고른 분포를 가진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 결과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는 측정방법의 문제들로 예컨대, 구직강도의 본질적 평가는 채용의 질로서 평가되어야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구직활동의 빈도, 지속성, 다양성, 선호도 등의 측정방법 중에 어느 것이 성공적 채용을 잘 예측할 수 있는지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처양식의 척도가 남성 중심의 문항들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역기능적 대처문항 중 일부 문항은 본 연구에 포함된 상당수 남성 실직자들에게는 부합되지만, 여성 실직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았을 수 있다. 예컨대, ‘담배를 이전보다 많이 피운다.’ ‘술을 더 많이 마신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역기능적 대처에서의 남녀차이는 이 문항들을 제거 후 분석하였을 때는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본 연구의 기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여성이나 30대 후반과 그 이후 연령층이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건강에서도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저소득층과 저학력층, 이혼녀, 비정규직 출신의 실직자들이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더 열악한 상태에 노출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사회적 자원이 결핍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직활동에 있어서도 사회적 관계망을 활용할 기회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직에 꼭 필요한 정보들에 소외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파급효과는 장기적으로는 재

취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런 소외계층들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돕기 위해 공식적인 구직활동들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나 제도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하겠다.

궁극적으로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사회적 편견이나 고정관념들에 대한 해소책들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재취업의 개인적 사회적 장애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단순히 구호적 일자리 창출에 머물지 않고, 구직자가 겪는 문제에 대한 심리적 개입, 구직자의 특성과 장애 상황을 고려한 구직자와 회사의 요구를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구직자의 경력(career) 향상 프로그램 개발 등의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구직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리적 개입방법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김명언, 노연희 (1998). 실직자의 정서적, 인지적, 신체화 반응 및 대처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7, 115-137.

김명언, 장재윤, 조성호, 노연희 (2003). 성취프로그램의 효과: 구직효능감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6, 181-204.

신선인 (2001). 한국판 일반정신건강척도(KGHQ)의 개발에 관한 연구 I(KGHQ-20과 KGHQ-30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6(9), 210-235.

신현균, 장재윤 (2003). 대학 4학년생의 성격특

성과 성별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815-827.

유성렬, 정기원 (2000). 실직 가구주 가정의 경제적 부담감이 가구주의 심리상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8, 397-422.

이민규 (2000). 실직자의 정신건강과 강인성 및 사회적 지지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549-561.

장재윤, 신현균, 김은정, 신희천, 하재룡, 장해미 (2004). 대학 4학년생의 구직행태에서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2), 145-165.

장재윤, 장은영, 김범성, 노연희, 이지영, 한지현 (2004). 청년실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2), 121-144.

조성희 (1999). 실직 이후 이혼가능성. *가족과 문화*, 11, 25-45.

한덕웅, 점검구, 탁진국, 이창호, 이건호(1993). 생활사건과 개인차가 생활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생지도연구*, 10, 1-13.

Ahlburg, D. A. (1986). The social costs of unemployment. In R. Castle, D. E. Lewis, & J. Mangan (Eds.), *Work, leisure, and technology* (pp. 19-29). Melbourne, Australia: Longman Cheshire.

Bartell, M., & Bartell, R. (1985). An integrative perspective on the psychological response of women and men to unemployment.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6, 27-49.

Brasher, E. E., & Chen, P. Y. (1999). Evaluation of success criteria in job search: A process perspective.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72, 57-70.

- Clark, A. E., & Oswald, A. J. (1994). Unhappiness and unemployment. *The Economic Journal*, 104, 648-659.
- Conway, V. J., & Terry, D. J. (1992). Appraised controllability as moderator of the effectiveness of different coping strategies: A test of the goodness of fit hypothesis. *Australia Journal of Psychology*, 44, 1-7.
- DeFrank, R. S., & Ivancevich, J. M. (1986). Job loss: An individual level review and model.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8, 1-20.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ooley, D., & Celentano, D. D. (1988). Recent research on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unemployment. *Journal of Social Issues*, 44, 1-12.
- Drentea, P. (1998). consequences of women's formal and informal job search methods for employment in female-dominated jobs. *Gender & Society*, 12, 321-338.
- Edwards, J. R. (1988). The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coping with stress. In C. L. Cooper and R. Payne (Eds.) *Causes, coping and consequences of stress at work*, John Wiley & Sons.
- Ellis, R. A., & Taylor, M. S. (1983). Role of self-esteem within the job search proces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8, 632-640.
- Feather, N. T. & O'Brien, G. E. (1986). A longitudinal study of the effects of employment and unemployment on school leavers.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59, 121-144.
- Goh, S. C. (1991).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interpersonal work style, career emphasis, supervisory monitoring behavior and job satisfaction. *Sex Roles*, 24, 701-711.
- Goldberg, D. P. (1972). *The detection of psychiatric illness by questionnair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Golombok, S., & Fivush, R. (1994). *Gender development*.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ffman, M. L., & Torres, L. (2001). Job search methods: Consequences for gender-based earning inequal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8, 127-141.
- Johoda, M. (1982). *Employment and unemployment: A socio-psychological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nfer, R., Wanberg, C. R., & Kantrowitz, T. M. (2001). Job search and employment: A personality-motivational analysis and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 837-855.
- Kasl, S. V., & Cobb, S. (1979). Some mental health consequences of plant closing and job loss. In L. Ferman & J. Gordus (Eds.), *Unemployed People* (pp. 94-110). Milton Keynes, UK: Open University Press.
- Kasl, S. V., Rodriguez, E., & Lasch, K. E. (1998). The impact of unemployment on health and well-being. In B. P. Dohrenwend (Ed.), *Adversity, stress, and psychopathology* (pp. 111-13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aufman, D., & Feters, M. L. (1980). Work

- motivation and job values among professional men and women: A new account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7, 251-262.
- Kulik, L. (2001). The impact of gender and marital status on attitudes and responses to unemployment. *Sociological Practice: A Journal of Clinical and Applied Sociology*, 3, 19-36.
- Kulik, L. (2000). The impact of gender and age on attitudes and reaction to unemployment: The Israeli case. *Sex Roles*, 43, 85-104.
- Latack, J., & Havlovic, S. (1992). Coping with job stress: A conceptual evaluations framework for coping measure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3, 479-508.
- Lazarus, R. S. (1993). Coping theory and research: Past, present, and future. *Psychosomatic Medicine*, 55, 234-247.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Leana, C. R., & Feldman, D. (1990). Individual responses to job loss: empirical findings from two field studies. *Human Relations*, 43, 1155-1181.
- Leana, C. R., & Feldman, D. (1991). Gender differences in responses to unemploy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8, 65-77.
- Leana, C. R., & Feldman, D. (1992). *Coping with job loss*. New York: Lexington Books.
- Maddi, S. R. (2002). The story of hardiness: Twenty years of theorizing, research and practice. *Consulting Psychology Journal*, 54, 173-185.
- Mastekaasa, A. (1996). Unemployment and health: Selection effects.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6, 189-205.
- Mau, W. C., & Kopischke, A. (2001). Search methods, job search, and job satisfaction of college graduates: A comparison of race and sex.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38, 141-149.
- McKee-Ryan, F. M., & Kinicki, A. J. (2002). Coping with job loss: A life-facet model. *International Review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7, 1-19.
- Prussia, G. E., Kinicki, A. J. & Bracker, J. S. (1993).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nsequences of job loss: A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using Weiners(1985) attribution model.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 382-384.
- Radloff, L. (1997). The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osen, E. I. (1987). *Bitter choices: Blue collar women in and out of work*.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owley, K. M., & Feather, N. T. (1987). The impact of unemployment in relation to age and length of unemployment.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60, 323-332.
- Sales, E. (1995). Surviving unemployment: Economic resources and job loss duration in blue-collar households. *Social Work*, 40, 483-491.
- Snyder, K., & Nowak, T. C. (1984). Job loss and demoralization: Do women fare better than men?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13, 92-106.
- Spera, S. P., Buhrfeind, E. D., & Pennebaker, J.

- W. (1994). Expensive within and coping with job los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7, 722-733.
- Spielberg, C. D., & Gorsuch, R. L., & Lushene, R. E.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 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Inc.
- Sverko, B., & Super, D. E. (1995). The findings of the work importances study. In B. Sverko & D. E. Super (Eds.), *Life-roles, values and careers: International findings of the work importance study* (pp. 147-155). San Francisco: Jossey-Bass.
- Tziner, A., Vered, E., & Ophir, L. (2004). Predictors of job search intensity among college graduate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2, 332-344.
- Vinokur, A., & Caplan, R. D. (1987). Attitudes and social support: Determinants of job-seeking behavior and well-being among the unemployed.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7, 1007-1024.
- Vinokur, A. D., Price, R. H., & Caplan, R. D. (1996). Hard times and hurtful partners: How financial strain affects depressio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of unemployed persons and their spou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166-179.
- Wanberg, C. R., Hough, L. M., & Song, A. (2002). Predictive validity of a multidisciplinary model of reemployment succes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7, 1100-1120.
- Wanberg, C. R., Kammeyer, J. D., & Shi, K. (2001). Job loss and the experience of unemployment: International research and perspectives. In N. Anderson, D. S. Ones, H. K. Sinangil, & C. Viswesvaran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 2, pp. 253-269). London, United Kingdom: Sage.
- Wanberg, C. R., Kanfer, R., & Banas, J. T. (2000). Predictors and outcomes of networking behavior among unemployed job-seeker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5, 491-503.
- Wanberg, C. R., Kanfer, R., & Rotundo, M. (1999). Unemployed individuals: Motives, job-search competencies, and job-search constraints as predictors of job seeking and reemploym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4, 897-910.
- Wanberg, C. R., Watt, J. D., & Rumsey, D. (1996). Individuals without jobs: An empirical study of job-seeking behavior and reemploym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1, 76-87.
- Warr, P. B., & Jackson, P. (1984). Men without jobs: Some correlates of age and length of unemployment.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57, 77-85.
- Warr, P. B., & Parry, G. (1982). Paid employment and women's psychological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1, 498-516.
- Yeung, W. J., & Hofferth, S. L. (1998). Family adaptations to income and job loss in the U.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9, 255-283.

Gender Differences in Responses to Unemployment and Job Search Intensity

Sang-Su Ahn* Kanghyun Shin** Youngsug Hahn* Jinkook Tak*
Tae-Yong Yoo* Tae-Young Han* Jongoh Hwang*

*Kwangwoon University

**Ajou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differences in responses to job loss and job search intensity, based on gender, marital status, age. Among people who unemployed for less than 2 months, 1539 unemployed individuals(1139 man and 400 woman) were responded the on-line survey.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on several aspects. Over all, unemployed women were reported more decline in the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as an outcome of unemployment than man ones. Unemployed women showed less informal job-searching activities than unemployed man.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however, between women and man in the job-searching intensity and formal job-searching activities. In addition, Despite of a no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an and women in the employment commitment, the unemployed women experienced more the barriers to reemployment and lower self efficacy of job seeking and lower social capital than man ones. Regarding the impact of age and gender in the responses to unemployment and the job searching activiti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gender and age had significant, but did not interact. In the job-searching activities, there was little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gender and age, or between gender and marital status. Finally, meanings of these result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mental health, unemployment women, job-searching intensity, gender difference.

1차 원고접수: 2005. 8. 22.

심사통과접수: 2005. 9. 20.

최종원고접수: 2005. 9. 22.